

10분 복음소식과 복음 요절

로마서 10:9-10

정윤돈 목사님

1. 원래 인간의 축복

(1) 창1:1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원어로 '엘로힘'이다. 이 한 절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루종일 공부할 수 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다른 곳에서는 단수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복수로 나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안 믿는데,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여기에 보면 '창조했다'고 했다. create다. make와 create는 다르다. 없는 데서 지으신 것이다.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3요소가 시간, 공간, 물질인데, 이 창1:1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 과학자들이 이 구절을 보면 놀란다고 한다. 태초, 즉 시간이다.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세상 어떤 책에도 무에서 유가 나오지 않는다. 없는 것에서 시간이 나오지 않는다. 죽음의 이유를 밝히는 책도 세상에 없다. 그러나 성경은 히9:27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 죽음에 대해서 선언하는 책이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 뿐이다. 창1:1만 믿으면 신앙생활의 절반은 끝난 것이다.

(2) 하나님은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며, 인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창1:27-28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다. 노래도 춤도 연극도 영화도 인간만이 만든다. 원숭이가 자전거를 타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준 부분만 반복할 뿐이다. 코끼리가 춤을 추지만 사람이 훈련시킨 대로 할 뿐이다. 인간은 만들어낸다. 왜인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며, 이때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재창조의 능력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재창조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승철 씨가 힘들어서 마약하고 그랬었는데, 부인을 잘 만났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 없이 창조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 무엇인가 의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마약을, 술을 의지한다. 쾌락을 의지한다.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야 한다. 결국은 재앙과 저주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진정한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평안을 회복한 것이다. 우리는 완벽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훨씬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있다. 주님 앞에 가면 당연히 리더가 되게 되어 있다. 마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다. 특별한 것이다.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것을 따먹지 않게 하신 것이다(창2:17). 이것은 굉장히 깊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 것을 아셨겠는가, 모르셨겠는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엄마가 딸에게 '방 치워놔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절대 안 치운다. 그게 자녀의 신분과 권세다. (웃음) 그러면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 지저분하고 불편해진다. 언약을 놓치면 냄새가 나고 불편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더러워지고 생각도 삶도 더러워진다. 불편해지고 어려워진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뭐든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존재라면 로봇에 불과하지 않은가? 자녀는 엄마가 시켰을 때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다. (웃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을 아시니까, 바로 인간이 실수한 직후에 대책을 주신 것이다.

2. 인간의 실패와 멸망

(1) 창3:6에, 인간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결국 먹어 버렸다. 게으름, 나태함, 더러움, 쾌락으로 인간은 가게 되어 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 주셨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녀가 청소 안 하면 대책이 무엇인가? 엄마가 해야 한다. 엄마가 희생하는 것이다. 인간이 죄를 짓고 잘못된 것을 누가 해결하시는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다.

(2)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제멋대로다.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 자기 잘난 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은, 롬3:23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밝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죄를 짓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짓는다. 날마다 실수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3. 하나님의 방법

(1)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① 이것이 창3:15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②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구신가?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성경에 예언해 주셨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다. 사7:14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에는 이것 외에도 300군데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 있다.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 석가가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석가가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오직 예수만이 처녀에게서 잉태된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처녀에게서 태어나고 죽었다가 부활했다면 고민을 해 봐야 한다. 누가 그리스도인지.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조건이 있다. 처녀에게서 태어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한다.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하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분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신 것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2) 그래서 행4:12에, “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교회는 돈이 많아서 건물도 짓고 사업도 많이 한다. 거기는 안상홍이 그리스도다. 그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처음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 이름 밖에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들이 생각을 안 바꾼다. 그래서 어릴 때, 청소년 때부터 오직 예수를 마음, 영혼, 생각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야 한다. 이 일에 우리가 사명을 걸어야 한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너무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믿으시기 바란다.

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다. 요14:6에,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 그 어떤 세상의 훌륭한 인물도 자기가 길, 진리, 생명이라고 단언하지 못했다. 석가는 깨달으면 지옥 안 갈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둘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 예수님은 정신병자거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길, 진리, 생명으로 믿으시기 바란다.

② 예수님은 대체사장이시다.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큰 대체사장이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구약시대처럼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막10:45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③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창3장에서 우리를 넘어뜨렸던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흑암 세력을 꺾어 버리신 것이다. 요일3:8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너무 다양하다.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내가 전과 10

범, 20범과 상담을 하는데, 세상에 그런 나쁜 짓도 있구나 싶을 정도였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자기 안에 악마가 있다고 했다. 모든 쾌락을 다 가져 봤지만 행복이 없고 죽고 싶었다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3)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 있는가? 롬10:9-10이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요1:12).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롬10:13).

(4)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고전3:16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할 때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에도 대변이 담기면 요강이 된다. 물이 담기면 물잔, 술이 담기면 술잔, 보석이 담기면 보석함이 된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전이 된 것이다.

(5)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요일5:11-13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목포의 조영찬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시다.” 왜냐? 아들을 이제 낳아서. (웃음) 그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최고의 고백이 마16:16이다. 이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란다. 이 사실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실수투성이이고, 연약함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아시고 구원을 계획하시며,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축복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